

기고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로 아파트 화재 더 이상의 인명피해 방지

4. 단독경보형감지기 세대 각 실별로 설치 필요성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기존 경보설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각 세대 내 거실과 방마다 축전지가 내장돼 있고 감지 기능과 경보기능이 있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현행 제도상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라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반면, 아파트 세대는 소화기 비치의 의무사항이나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설치 의무가 없으며,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중복된다는 인식으로 인해 설치 필요성이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각 가정별로 독립된 공간이며 세대별 방화구획으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연소 확대 우려가 거의 없고 화재발생 세대 내에서만 연소로 그친다.  
 아파트는 방화구획이 세대 단위로 잘 돼 있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주로 사상자는 발화 세대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축 아파트에 스프링클러설비 등 자동소화장치를 보급하여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설치비용과 층고 및 반사 설치여부 등의 구조적인 문제로 현실적으로 어렵다.  
 아파트 화재 사례를 보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아파트의 경우에서도 스프링클러설비 헤드가 개방되어 살수가 되었다라도 이미 발생한 연기로 인한 피해와 완전한 진화가 어려워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기존의 자동화재탐지설비에 스프링클러설비와 더불어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추가 설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우선적으로라도 설치가 간편하고 비용 부담이 적은 단독경보형감지기부터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라 할 수 있다.  
 화재 초기 대응에서 자동소화설비에 의한 진화도 중요하지만, 거주자의 신속한 인지가 더욱 중요한 만큼, 세대 내 각 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함으로써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다음호에 계속)

보성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경 김선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어떤 이는 돈이라 하고 또 다른 어떤 이는 건강이라 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 아닐까. 건강해야 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이 퇴색해지면 의욕도 줄어든다. 짜증도 나고 싫증도 느껴진다. 결국 건강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부귀보다도 상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권력, 경제력 등을 모두 확보해도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허사다.

칼럼  
임성욱

시인/사회복지학박사



과욕을 버려라 과욕을

치에 빠져볼 필요는 있다.  
 인생은 다시 오지 않는다. 그래서 때순간이 소중하다.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시간. 쉽다. 그래서 현재의 시간은 다시는 오지 않을 영원 속의 한 점인 것이다. 그래서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는 '인생은 5분의 연속'이라는 각오로 글쓰기에 매달렸다.  
 왜 그랬을까.  
 기막힌 사연이 있었다. 1849년 12월. 엄청나게 몰아치는 매서운 눈보라 속에서 러시아 세메노프 사형장 사형대 위에 반체제 혐의로 잡혀온 28살의 젊은 사형수. 집행관은 그에게 마지막 5분을 주었다. 그 5분도 점점 흘러 마지막 1분만 남

았다. 사형수는 두려움에 떨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최후의 1분도 다 지나갈 무렵. 그때 황제의 명을 받은 전령사가 저 멀리서 큰 소리로 외치며 달려왔다. "사형 집행 행을 멈추시오!!!" 라면서. 결국 황제의 명으로 살아난 이 젊은이는 4년간 시베리아에서 유배 생활을 했다.  
 이 젊은이가 바로 도스토예프스키다. 형기를 마치고 나온 후 도스토예프스키는 그 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죄와 벌",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영원한 만남" 등 수많은 불후의 명작을 남겼다. 사지에서 돌아오면서 삶의 중요성을 깨달았던 것이다. 쉽지가 않던 시간을 결코 헛되이 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우

리는 때로 시간의 지루성을 느낄 때가 있다. 헛되이 보낼 때도 있다. 너무나 귀중한 시간을 말이다.

한번 흘러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시간을. 이런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다. 서글픈 일이다. 그래서 현재를 즐겨야 한다. 그 즐겁고 시간 들을 더해갔을 때 한 인간의 아름다운 역사를 쓸 수 있다. 그런데도 연조 깊은 분들마저도 추잡한 욕망에 그득 찬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다. 이에는 정지인도, 학자도, 종교인도, 연예인도. 돈 많은 부호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미친 세상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런 세상에서 감지자걸음을, 때로는 난폭 운전하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것은 죽음뿐이다. 죽음이 아닌 인생을 관조하면서 이런 병리적 현상들을 멈추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있다. 분명히 있다. 그것은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욕을 버려야 할 것이다. 과욕을 말이다.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지난 6월 27일 오후 1시 26분쯤 여주시 만흥동의 한 식품 가공업체에서 정화초 청소 작업을 하던 직원과 이를 구조하려던 업체 대표가 잇따라 쓰러져 2명이 모두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과거에도 2020년 부산에서 맨홀 내부에서 작업 중 3명이 숨졌고, 2008년 경기도 이천 냉동물류창고에서는 채 환기가 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하다가 점화원에 의해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하자

발화·폭발하며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는 40여 명의 생명을 앗아갔다.  
 이처럼 밀폐된 공간에서는 산소 결핍으로 질식사 가능성이 있다. 또 유해가스 등이 폭발범위 내에 존재해 성냥이나 화기 등 점화원과 접촉할 경우 폭발할 위험이 있다. 이에 작업 전에는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재해로부터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산소 결핍·유해가스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먼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작업안전수칙과 사용해야 할 보호구·장비, 사고 시 구조 방법·응급처치 요령 등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또 공장이나 공동주택 등의 맨홀, 정화조 등 밀폐 공간에서 작업할 때 화재·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 실천이 필요하다.

주요 안전수칙에는 ▲작업 전·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작업 전·중 환기 ▲보호구 착용 ▲작업 중 정지정돈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밀폐 공간에서 구조 작업을 할 때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구조에 나서야 한다. 보호 장비가 없다면 119에 구조를 요청해 제2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모든 사고가 마참가지지만 안전수칙을 지킬 때 안전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고흥소방서 과역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규

오늘의 운세 2025년 7월 9일 수요일 (음력 6월 15일)

<p>48년생 멀리 있는 목표 차근차근 가야 한다. 60년생 불운은 손님이 웃음을 보낸다. 72년생 극적인 반전의 주인공이 되어보자. 84년생 지극한 겸손-예의까지 갖춰보자. 96년생 살림과 긴장 주는 계인을 들어보자.</p>	<p>49년생 싫다 하는 거절 배경을 지켜내자. 61년생 소소한 행복에 귀환을 지켜내자. 73년생 밤이 아름다운 만남을 가져보자. 85년생 다음을 인정하고 빠르게 헤어져야 한다. 97년생 낭만과 현실의 차이를 알아내자.</p>	<p>50년생 열심히 살았던 보답을 받아보자. 62년생 자부심과 권위를 되찾아 줄 수 있다. 74년생 기분에 의한 결정 금방 후회가 된다. 86년생 아이 같은 행동 겸손만 갖춰야 한다. 98년생 그림의 떡이 아니라 미련을 남겨보자.</p>
<p>51년생 내색은 못 해도 섭섭함을 남겨보자. 63년생 풍성한 여유 경승관에서 부러워지 않는다. 75년생 귀찮고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보자. 87년생 여기 저기 인사 고개를 숙여야 한다. 99년생 입이 귀에 걸리는 칭찬을 들어보자.</p>	<p>52년생 아름다운 인연 사랑 꽃을 피워보자. 64년생 끈기와 열정 문신처럼 새겨야 한다. 76년생 거울 앞 시간 꾸미고 치장하자. 88년생 불평한 경쟁심 친구를 알아야 한다. 100년생 재미없는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한다.</p>	<p>53년생 부탁이 없어도 먼저 해아려주자. 65년생 아낌없는 조언 더불어 살아내자. 77년생 고집도 정도껏 원망을 들어야 한다. 89년생 다른 세상 살았던 반성문을 써내자. 91년생 급할 이유 없다. 기다림을 더해보자.</p>
<p>54년생 유일한 해결책 빚을 얻어야 한다. 66년생 두둑한 배짱으로 이문을 남겨보자. 78년생 꽃과 나비 원하던 만남을 가져보자. 90년생 준비했던 계획 실천으로 기보자. 02년생 색안경을 벗어야 진짜가 보여진다.</p>	<p>55년생 발걸음 무거워도 차선을 가져오자. 67년생 수줍게 오는 고객 예쁘게 받아내자. 79년생 자존심 대결 치열함을 가져보자. 91년생 누구라는 이름 비싸게 불러준다. 03년생 어렵다 포기했던 기회가 다시 온다.</p>	<p>56년생 여전히 배고프다 욕심을 가져보자. 68년생 싫다 소리 뒤에 반가움도 함께 한다. 80년생 걱정이자 축하만 같이 교차한다. 92년생 불편한 자리 눈치보도 먹어야 한다. 04년생 왔다 갔다 초심에 중심을 잡아내자.</p>
<p>57년생 옛날 방식 버리고 새것을 가져오자. 69년생 쌓여있던 경험이 금한물을 깨준다. 81년생 이왕 시적인 거미무리를 해내자. 93년생 지성이 명강현력이 떨어진다. 05년생 큰 힘되어주는 위로를 들어보자.</p>	<p>58년생 근사한 솜씨로 인물이 해보자. 70년생 관심과 애정으로 주변을 돌아보자. 82년생 넘어지는 세상 강이 바다로 간다. 94년생 책으로 쓰여질 자랑이 생겨난다. 06년생 완벽하다 싶어도 방심은 금물이다.</p>	<p>47년생 감사함이 담겨진 선물을 받아보자. 59년생 당당한 승리 사상에 올라보자. 71년생 결자해제 외양보다 속내를 알아내자. 83년생 고치고 다시 써야 백점을 받아낸다. 95년생 평화로운 순문의 시간에 담겨보자.</p>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p>광전매일신문 e-mail : gwangmae5678@hanmail.net</p>	
<p>회장이 송암</p>	<p>발행인·대표이사 정길화</p>
<p>편집인 전광춘</p>	<p>편집국장 박선주</p>
<p>2016년 8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 00065</p>	<p>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신로 20번길 8, 2층</p>
<p>대표전화 (062)525-9775</p>	<p>&lt;팩스&gt; (062)528-4566</p>
<p>회장실 (내선)210</p>	<p>편집국 교 2001</p>
<p>입원실 (내선)207</p>	<p>정경부 교 2003</p>
<p>총무국 교 2002</p>	<p>사회부 교 2004</p>
<p>광고국 교 2006</p>	<p>사업국 교 2007</p>
<p>인쇄 (주)대진칼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3,000원 · 1부700원</p>	

경부고속도로 개통 50년,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만들다!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한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생명선이었습니다.  
 기적의 50년! 희망의 100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